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후회하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만약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받은 '저주'를 '조상 탓'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십계명과 같은 중요한 말씀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부모 죄를 자식에게 꼭 갚으심(민 14:18)

물론 출애굽기 20장 5절의 입장은 민수기 14장 18절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에서 한 층 더 강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가계저주론자'들은 위에 제시된 해석이 너무나 약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이윤호 1999:89 참조). 왜냐하면 민수기의 이 구절은 계대 간에 흐르는 저주가 필연적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구절의 더 넓은 문맥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임을 보게 된다. 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열두 정탐꾼들 중 열 사람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며 땅을 악평했을 때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쳐서 멸하시려고" 하셨다(11~12절). 이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드리며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부를 인용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였고, 나아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라는 주님의 응답까지 받아 냈다. 따라서 민수기 14장 18절은 주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강조하지만 주님의 공의보다 은총이 더 깊고 큰 것을 말해 준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 묻히지만 그들조차도 소위 '가계저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 나아가 민수기 본문도 주님의 '넘치는 인자하심'(rab-hesed)과 '공의'가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승리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3)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시 51:5)

이윤호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신앙의 용기와 격려를 받는 히브리서 기자와는 달리(히 11장), 그들의 집에 흐르는 죄와 그 저주를 열심히 추적하면서 성경의 구속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는 노아의 집안에 흐르는 '술취함'과 '성적 방종'(창 9:20~22)이 "가나안 족속에게 동성연애"로 흘러 들어갔으며(1999: 49~51), 아브라함의 가계에는 '거짓말'이 유전적인 죄로 흐르고(53~57쪽), 다윗의 집에는 '음란'이 유전적인 죄로 흐른다고 주장하며(58~60쪽), 그 근거로 시편 51편 5절을 인용한다. 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 집안에 있는 '근친상간'과 '기생과의 결혼'과 '기혼녀와의 결혼' 등을 열거하며, "따라서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 범죄 후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한 고백은 어쩌면 자신의 간음죄가 어머니의 실제적인 어떤 성적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60쪽).